

<서동요>의 후대적 수용 양상과 변용 연구

하 경 숙

(선문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서동요>의 수용 양상
- III.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양상
- IV. 현대적 변용 양상의 의미
- V. 맺음말

<국문 요약>

<서동요>는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 때 지었다는 4구체 향가로 그 설화(說話)와 함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무왕조(武王條)」에 실려서 전하고 있다. <서동요>는 오랫동안 유동과 적층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 작품으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신분을 초월한 애정의 노래이지만 실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변용(變容)과 수용(受用)이 다양한 장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노래의 모호성과 숨겨진 함의는 문학의 소재(素材)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여러 장르로의 전환과 변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동요>를 단순히 신라시대의 노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텍스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향가 <서동요>는 다양한 전승(傳承)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에는 이복휴의 악부(樂府) <서동>으로 가창되어서 현실세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현대에 와서 향가 <서동요>는 현대시·현대소설·드라마·뮤지컬 등을 통하여 대중들과 새롭게 소통하고 있다.

<서동요>를 재창조한 작가들은 <서동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창작자들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정담(愛情談)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해석을 극복하고 다양한 감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삶과 감정의 원형을 추적해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서동요>를 다양하게 변용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통하여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주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주제어: 서동요, 후대적 수용, 변용, 서동, 선화공주.

I. 머리말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개연성의 파악은 곧 세계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정보의 확장을 의미한다.¹⁾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사물과 사유상을 인지할 수 있으며 세계를 살피는 시야가 넓어진다.

<서동요>는 서동이 선화공주에 대한 은밀한 구애를 보여주는 사랑의 노래로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불리워진 노래이다. <서동요>는 백제의 서동(薯童: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이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 ? ~ 632년) 때 지었다는 4구체 향가이다. <서동요>는 그 설화(說話)와 함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무왕조(武王條)」에 실려서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백제의 무왕이 어린시절 진평왕의 셋째딸인 선화공주(善花公主)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를 사모하던 끝에 머리를 깎고 중처럼 분장을 하여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와서 마(薯)를 팔러 다니면서 성 안의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주어 환심을 사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서동요>는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노래이다. 그러나 <서동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창작자와 시대에 대한 문제, 노래의 주술적·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에 치중하였고, 그것의 전승과정에 대한 의문점과 다양한 의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²⁾ <서동요>는 다양한 성격을

-
- 1) 심재호,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 연구」, 『국어문학』 50권, 국어문화회, 2011, 95쪽.
 - 2) 김병욱, 「서동요고(考)」,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 박노준, 「서동요의 역사성과 설화성」, 『어문논집』 17, 민족어문화회, 1976 ; 김승찬, 「서동요 연구」, 『국어국문학』 35, 부산대학교, 1998 ; 윤철중, 「「서동요」의 신고찰 - ‘원을포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반교어문연구』 6, 반교어문화회, 1995 ; 최용수,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 20, 배달말학회, 1995 ; 유비향, 「서동요와 서동설화의 원형적 상징 - 영웅출현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 2, 한국시가학회, 1997 ;

지닌 노래로 그 변용과 수용은 다양한 장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흥미롭다. 최근에는 <서동요>에 대한 연구가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래, 문학, 영상, 지역문화, 건축,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서동요>는 그 창작과 향유에 있어서 유동적(流動的)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 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작품의 한계를 실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인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서동요>가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이미 작품의 대중성과 생명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서동요>는 오랫동안 유동과 적층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 작품이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이 지닌 특별한 애정문제와 아울러 노래 속에 담겨진 의미를 추리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주어진 문제로 전달되고 있다.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노래의 모호성과 숨겨진 함의는 문학의 소재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재에도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장르의 전환과 변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김수업, 「서동노래의 바탕에 대하여」, 『어문학』 35, 한국어문학회, 1976; 정한기, 「서동요에 나타난 민요적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최재남, 「민요계 향가의 구성 방식과 사랑의 표현; <서동요>와 <헌화가>의 대비」, 『반교어문연구』 29, 반교어문학회, 2010 ; 표정옥, 「청소년의 다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삼국유사』의 창의적 글쓰기와 독서토론 연구: 중학교 교과 <서동요>교육의 미디어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유육례,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한선아, 「<서동요>를 통해 본 통합교육의 실천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신영명, 「<서동요>의 역사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21, 우리문학회, 2007; 정운채, 「<무왕설화>와 <서동요>의 주역적 해석과 문학치료의 구조화」, 『한국어교육학회지』 106, 한국어교육학회, 2001; 김종진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이완형, 「‘武王’조의 찬술의도와 서동요의 성격」,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황인덕, 「<訥童謠>의 ‘알(卵)’ 해석 재론」,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2007.

는 <서동요>를 단순히 신라시대의 노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텍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호하면서도 신비한 애정의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동요>는 현대시·현대소설·드라마·뮤지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새롭게 소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매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부여한다고 판단이 된다.

본고에서는 향가 <서동요>를 통하여 후대에 변용된 작품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내재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원전의 세련됨과 아울러 그 의미를 규정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서동요>의 수용 양상

문학작품의 형태적 변이는 우리의 체험이 새로운 인식과 만나 새로운 체험으로 변이되는 것처럼 전대에 창조된 문학작품의 형태를 결정짓는 미적 인식에 대하여 당대에 새로이 생성된 미적 인식이 결합됨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다.³⁾ 그러므로 문학은 그 작품 속에서 사회가 문학작품의 양상(樣相)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전대의 가치관과 사유(思惟)상을 전승하여, 내재된 원형적인 의미를 복원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전서사는 오랜 기간을 거쳐 축적되고 취사선택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다.⁴⁾ 현재에는 다양한 서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삶에 대한 접근의 시도는 미비하다. 그러나 고전서사는 인류의 근원적인 삶의 모습과 원형이 담겨

3) 김효림, 「삼국시대 서사문학연구-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난 통치자의 형상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0쪽.

4)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화회, 2008, 102쪽.

있고 보존되어 있으면서 그 방법을 고심했다. 현대적 전승은 친숙한 이야기의 반복이 아닌 당대 사회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새로운 읽기의 과정이다.⁵⁾

1. 수용과정

<서동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무왕(武王)>조에 실려서 전하고 있다.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은 설화적인데, 마를 캐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서동이 이 계락을 써서 공주를 아내로 삼아 신분이 상승한 이야기 속에서 이 노래가 사건 전환(轉換)의 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⁶⁾ 서동이 공주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바탕으로 개사(改辭)하여 <서동요>를 만들었고 노래를 퍼뜨리기 위해 서울의 아이들과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노래 유포(流布)의 시작으로 보였다. 또한 그 노래는 유포자(流布者)인 아이들의 발설 본능에 힘입어 동요(童謠)로서 전파가 가속화 되었다.⁷⁾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모친이 과부가 되어 서울 남지변(南池邊)가에 살았는데, 그 못 속의 용(龍)과 교통(交通)하여 장(璋)을 낳고, 아명(兒名)을 서동(蓍童)이라 불렀는데, 그 도량(度量)이 넓어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다 팔아 생활(生活)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서동(蓍童)이라고 불렀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서동은 머리를 깎고 서라벌로 가서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童謠)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꾀어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선화공주님은 남 몰러 어려(정을 통한다는 뜻) 두고 서동방(蓍童房)을 몰래 밤에 안고 간다」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대궐에까

5) 안토니 이스트호프 ·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6, 81쪽.

6) 류병윤, 「<서동요>의 형성과정」,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3~24쪽.

7) 장성진, 「서동요의 형성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2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6, 236~244쪽 참조.

지 들리게 되므로 백관들이 임금에게 간곡히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노자에 쓰도록 했다. 공주가 귀양처로 갈 때 서동이 도중에 나와 맞이하며 공주에게 절하여 모시기를 청했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우연히 믿고 기뻐하여 따라가며 잠통(潛通)하였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가 맞은 것을 알았다.⁸⁾

-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무왕(武王)>조

이처럼 향가로 분류되는 <서동요>의 전파 담당자는 바로 아동(兒童)인 것이다. 서동은 궁중의 공주(公主)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동요(童謠)를 만들고 아이의 입을 빌어 그 노래를 퍼뜨리고 있어서 서동의 목적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서동요>는 아이들의 노래, 서동의 노래, 선화공주의 노래라는 세 차원이 복합되어 있으면서 또한 예언, 애정, 자유의지의 세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서동요>는 기존의 동요를 기반으로 개사한 이유는 백제(百濟)와 신라(新羅)가 역사적으로 굴곡짐을 반복하는 것에서 추리할 수 있다. 동요나 민요의 변개(變改)는 사회의 변화나 수반되는 상황에 따라 항상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동요>는 표면적으로는 ‘애정(愛情)’의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서동의 욕망(慾望)이 존재하는 노래로 표현되었으

8) 第三十武王，名璋。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池龍交通而生，小名薯童，器量難測。常掘薯，賣爲活業，國人因以爲名。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美艷無雙，剃髮來京師，以薯餉閭里童，郡童親附之，乃作謠，誘童而唱之云善化公主主隱，他密只嫁良置古，薯童房乙，夜矣卯乙抱遣去如。童謠滿京，達於宮禁，百官極諫，竄流公主於遠方。將行，王后以純金一斗贈行，公主將至窺所，薯童出拜途中，將欲侍衛而行，公主雖不識其從來，偶爾信悅，因此隨行，潛通焉，然後知薯童名，乃信童謠之驗。

9) 한영란, 「동요 개념의 전개양상 연구 -1910년대 이전의 문헌에 나타난 ‘동요’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학』 85권, 2004, 409쪽.

10)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 제 2집, 한국시가연구회, 1997, 196쪽.

며 시대와 정치적 상황 및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원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善化公主主隱	선화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사귀어
薯童房乙	맛둥(薯童)도련님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향가 <서동요>는 민요의 구성을 활용하여 문자문학으로 창작한 노래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선후창 민요의 사설 확장 방법을 잘 활용하여 서동이 이를 조정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설(辭說)을 확장시켜서 전승되었다.¹¹⁾ 한편 <서동요>의 성격을 공개적 구애요(求愛謠)가 예언적 참요로 변모한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면서¹²⁾ 다양하게 규명하고 있다. 참요(讖謠)는 민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의 사상과 감정 지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통치자들에 대한 조소나 증오, 그들에 대한 예언(豫言)·예시(豫示)가 드러나 현실에 대한 당한 도전, 폭로와 비판을 담고 있다.¹³⁾

2. 후대 전승

향가 <서동요>는 다양한 전승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에는 악부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창되어서 소통되었다. 기존의 악부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악부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의 노래를 한역(漢譯)하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읊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실세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¹⁴⁾

11) 최재남, 「민요계 향가의 구성 방식과 사랑의 표현- <서동요>와 <헌화가>의 대비」,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181쪽.

12) 강혜선, 「구애의 민요로 본 서동요」,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35~44쪽.

13) 최철, 『한국민요학』, 연세대출판부, 1998, 6쪽.

서동과 선화공주를 소재로 창작된 악부(樂府)는 이복휴의 <서동>이 있다. 그 내용은 서동과 선화공주가 사랑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靑山淡無姿	푸른산 맑아도 모양별로 없지만
薯蕷多於土	그 땅에는 마늘이 많다네
矯矯彼龍子	날래고 사나운 저 용의 아들이
采采日當午	정오가 되도록 마를 많이 캐네
自言採作藍田 ¹⁵⁾ 玉	스스로 자기를 일컫기를 남전에서 옥을 캐다고 하거늘
玄霜搗得雲英親	검은 구름을 쪼다가 운영과 친하게 되었네.
善化離宮春不春	선화공주의 이궁에는 봄이 봄같지 않고
街童齊唱厭孤謠	거리의 아이들은 모두들 예언의 노래를 부르네
宮中鹿車行向向	궁중안의 작은 수레는 멀리 가는데
女心有郎郎有金	여인은 낭군 생각 낭군에게 금이 있는데
金在高山色色好	금은 높은 산에 있어 빛이 좋다네
蓬窰寶氣橫扶桑	쑥쑥옴집 보배기운 해뜰녘에 가로 놓였고
龍華寺裡香煙繞	용화사 절 속에 향기는 안개를 두르고
獅前彩翬無脛走	사자 앞에 금빛합자 지고 달리 이 없어도
曉寢色動鷄林主	새벽침소 신라의 임금 감동 되네
金翁散盡販大寶	금상자 흩어주고 큰 보배도 팔았으나
晉宮午馬誰能悟	진궁의 마소같은 이들 중에 누가 능히 깨우치리야
空教創起彌勒寺	공연히 미륵사를 창건하여
不作龍堂祭龍父	용당을 지어 않고 용부를 제사지내지 않네

이복휴, <서동>, 『해동악부』

이복휴의 악부 <서동>은 원 텍스트를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현하고 있다. 이복휴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시어사용을 강조하기 보

14) 유명혜, 「굴산 이유원 연구- 문화, 예술 취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63쪽.

15) 藍田은 중국 섬서성 서안시 동남방에 있는 현의 이름으로 그 동쪽의 남전산에서 아름다운 구슬이 났다. 명문에서 뛰어난 젊은이가 나옴을 칭찬할 때 이르는 말.

다는 사실적인 내용전달에 비중을 두려는 창작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영사악부(詠史樂府)에 있어서 그 내용전개나 형식에 있어서 전형성을 띠고 있다.¹⁶⁾ 악부 <서동>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의 결합이 나오는데 우선은 개인적인 결합의 형태를 보이고, 후에는 공식적인 결합의 상황을 보인다. 악부 <서동>에서 서동은 사실은 용(龍)의 아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마를 캐는 근면하고 성실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한 근면(勤勉)함은 도교의 신선의 영역인 ‘옥(玉)’과 ‘선약(仙藥)’으로 이어지면서 서동의 신분을 높은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녀’인 선화공주와의 만남이 서로 어울리는 설정¹⁷⁾이라고 보여주면서 그 만남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한 악부 <서동>에서 ‘여인은 낭군생각(女心有郎)’이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듯이 적극적인 감정을 지닌 선화공주의 내면세계를 짐작할 수 있고 이 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

서동과 선화공주가 겪었던 일종의 시련은 비로소 ‘신라 임금의 감동으로’ 이어져서 부모의 허락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 결혼이라는 사실을 가져온다. 아울러 미륵사(彌勒寺)를 창건(創建)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일종의 결실(結實)의 양상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결국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깊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복휴의 악부 <서동>에서는 이별이나 고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¹⁸⁾을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사랑의 성공담은 신분이 천한 서동이 선화공주와의 개인적 결합에서 공식적 결합이 되기까지의 장애와 그것의 극복을 형상화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16) 하경숙, 「고대가요의 후대적 전승과 변용 연구 -<공무도하가> · <황조가> · <구지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84쪽.

17) 함귀남, 「삼국시대 인물서사의 후대적 재현 · 변모양상: 악부의 애정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1쪽.

18) 김용규, 『도덕을 위한 철학통조림, 달콤한 맛』, 푸른그대, 2005, 86~134쪽.

이복휴는 사회적 가치체계보다는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표명하며 이것이 실존과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추리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지속적으로 행해진 교화(敎化)정책에 힘입어 열(烈)이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창작되어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복휴는 당대 지배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실존으로의 의미에 대하여 표명하였다. 무엇보다 삶의 근본이 되는 애정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인간에 대한 순수한 탐구와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실증(實證)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악부 <서동>에서는 남성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에 집중한다. 애정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하고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성취를 위해 적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유연한 문체인 악부를 통해서 형성화하고 있다.

<서동요>는 단순히 신라 향가로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와서 악부로 가창한 것을 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그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서동요>는 단순한 애정문제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한 시대적 사유(思惟)상까지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세계관을 추리할 수 있으며 현실적 사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히 문학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이상적인 주제를 형상화하고 추앙(推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집중을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간중심의 실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19) 함귀남, 앞의 논문, 62쪽.

20) 장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5, 85쪽.

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과거와 분리하여 이원화(二元化)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복휴의 악부 <서동>에서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우리의 역사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가 처한 현실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通察)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양상

고전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속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전승(口碑傳承)의 단계를 지나,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문자의 형식을 통해 대중 속으로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단계를 지나,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더욱 강하고 빠른 전파력을 자랑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외양은 달라졌을지라도 그것에 숨어있는 원초적인 인자로서 이야기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돼왔다.²¹⁾ 고전문학의 가치는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추구와 공유(共有)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독자 계층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을 수용한다.²²⁾ 이런 상황에서 <서동요>는 여전히 완성된 텍스트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텍스트이다.

앞으로 논의 할 <서동요>를 변용한 현대소설·현대시·뮤지컬에서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단순히 애정문제에 집중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재현(再現)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의 상황을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1) 정수현, 「대중매체의 설화수용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1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251쪽.

22)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0쪽.

1. 소설 - 이수광의 『하룻밤에 읽는 소설 서동요』

이수광의 『하룻밤에 읽는 소설 서동요』(이하 소설 서동요)는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로 알려진 <서동요>를 소설로 재현하였는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은 백제의 왕자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소설 서동요』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과 사실까지도 상세히 내포하고 있다. 백제의 왕자 서동이 황궁(皇宮)에서 쫓겨난 이유와 아울러 당시 백제의 치열한 왕권을 둘러싼 음모(陰謀)와 권력(權力)에 대한 투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백제의 위덕왕과 몰락한 귀족가문의 출신인 연미랑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장은 사악한 황후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다. 비운의 왕인 위덕왕은 황후와 상좌평 사택기루의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왕권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 연미랑마저 지키지 못하고 핏덩이 아들과 함께 궁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리하여 왕자 장(璋)은 궁궐에서 쫓겨나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마를 파는 아이 서동으로 천민(賤民)들과 함께 생활한다. 하지만 황궁 세력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서동과 그의 어머니 연미랑은 결국 백제를 떠나서 신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서동은 서라벌에서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다. 선화공주는 아름답고 총명하여 못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세월이 흐르고 위덕왕이 죽고 혜왕과 법왕이 일년 남짓 권력을 잡는다. 세력이 없던 서동은 금광(金鑛)을 발견하게 되고 황금(黃金)이 절실히 필요했던 신라와 거래를 하게 된다. 한편 사랑하는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신라로 돌아온 서동은 <서동요>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다. 이에 선화공주는 서동과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조국과 권력을 포기하고 서동을 따른다. 세월은 무수히 흐르고 서동 장은 무왕(武王)으로 즉위한 후 선정(善政)을 베풀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백제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무왕과 선화

공주는 부부가 되어서 사십 여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결혼생활을 했고, 그들 부부의 사이에서 낳은 원자는 태자(太子)로 책봉되었다. 태자는 학문이 뛰어나고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지극하였다. 선화공주는 태자(太子)의 자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 보면서 궁남지의 포룡정을 거니는데, 궁남지에 수양머들 꽃숨이 날리는 배경과 아울러 사십 여년 동안 서동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선화공주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 소설 속에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 직전의 삼국의 정세변화와 아울러 서술되면서 후에 선덕여왕의 자리에 올라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덕만공주의 이야기까지 첨가되어 흥미를 준다.

『소설 서동요』는 국경을 넘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야망과 좌절을 절실(切實)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유의 서사 방법이나 주제를 가진 소설들은 시대를 건너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²³⁾ 이 소설에서는 애뜻한 러브스토리가 극명하게 그려진다. 또한 모든 역경을 딛고 사랑을 성취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감동을 받는다. 원 텍스트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면서도 서동이 무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스토리의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이수광의 『소설 서동요』는 설화(說話)적인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세부사항들을 가미하여서 스토리의 이해를 돕고 소설속의 주인공이 지닌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과 선택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원 텍스트가 지닌 서동의 태도와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단순히 서동의 애정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선택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영웅담(英雄譚)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기호(嗜好)에 잘 맞추어진 작품으로 대중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23) 김한식, 『소설의 시대』, 미다스북스, 2010, 261쪽.

2. 현대시 <서동요>²⁴⁾

1) 홍해리 <서동요>

1. 사랑

천의 아이들 입마다/불을 밝혀서//서라벌 고살마다/밤을 밝히던//
 사랑 앞엔/국경도 총칼도 없어//오로지 타고르는/불꽃 있을 뿐//
 사랑도 그적이면/꽃이었어라//

2. 노래

사랑 앞에선/황금도 돌무더기/신라 천년/사랑 천년/
 그 언저리/노랫소리/들려요 들려요/그대 옆구리 간질이던/바람/
 아직도 가슴에 타고/서라벌 나무 이파리/ 하나/ 흔들리고 있어요/
 고살마다//아롱아롱 일어나는/ 아지랑이/몽롱한 꿈자리/보여요 보여요//

3. 서울

6월이 오면/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지만/시멘트 철근의 숲은/오염에 젖어 있고/
 흐린 하늘 아래/아래만 살아남은 뜨거운 사랑/순간적착제/뺨튀김 강정/
 불꽃만 요란하고/식은 잣더미가 골목마다 쌓인다/별이 뜨지 않는/매연의 거리/
 이제 사랑도 별볼일없어/찍어 바르고/문지르고 두드려/저마다 몇 개의 탈을
 쓰고/

거리마다 서성댄다/소리의 집만 무성한 잡초 덩불/깨어진 거울조각이/시대의
 흙 속에 묻힌다//

- 홍해리, <서동요>, 『대추꽃 초록빛』, 동천사, 1987

24) 고영민, 「서동요를 듣다」, 『악어』, 실천문학사, 2005; 권천학, 「서동의 일기」, 『청동거울 속의 하늘-삼국유사에 부쳐서』, 푸른물결, 1998; 권천학, 「서동의 일기-서동·1」, 『가이아 부인은 와병중』, 뿌리, 1994; 김규화, 「서동이여」, 『진단시동인 테마시집-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김석규, 「신서동요」, 『태평가』, 빛남, 2001; 김용관, 「마동이 선화공주를 안고」, 『산으로 오르는 풍경소리』, 정은출판, 2005; 문효치, 「서동의 기쁨」, 『진단시 동인테마』, 시문학사, 1991; 박경석, 「내 열아홉 서동」, 『아내의 잠』, 민음사, 1987; 박상배, 「신 서동요」, 『모자속의 시들』, 문학과 지성사, 1988; 박진환, 「서동」, 『진단시동인 테마시집-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홍해리의 <서동요>에서는 원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서정(抒情)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원 텍스트에서 아이들의 입을 빌어서 목적을 이루려는 서동과는 달리 홍해리의 시에서는 목적이 없는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홍해리의 연작시 <서동요>는 1편 <사랑>과 2편 <노래>에서 원 텍스트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재현(再現)하여 서정적인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서울이라는 공간을 대비시켜서 현대인이 지닌 애정의 가치와 모습을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시에서는 천년(千年)의 시공을 초월하여 사랑의 위대함을 고스란히 현대의 서울로 옮겨온 시적배경을 설정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천년전 신라인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사랑의 감정이 고조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일시적이면서 일회적(一回的)인 육체적 사랑만이 남아서 존재할 뿐 진실한 애정의 감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이성과의 교제를 쉽게 생각하고 금세 헤어지는 현 세태를 반영한 모습이기도 하다. 시에서는 현재 대중이 처한 애정의 모습을 잡초 덩굴이나 깨어진 거울 조각에 비유(比喩)하면서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작가는 시적화자를 통해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설명하고자 노력하면서 현실의 안타까운 상황을 시적화자는 한탄하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홍해리의 시 <서동요>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정문제에 대한 집착을 고수(固守)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원 텍스트를 기반으로 서술하면서도 현재의 시공간을 대비시켜서 애정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현대인의 애정문제와 삶의 생활태도를 반성하고 점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임보 <서동형님의 달>

형님/열일곱 이룬 여름은/유난히도 출렁거렸지요//천둥은/밤마다/언뜻 속의 별들을 거뒀어 올리고//

새들은/ 더운 날개로/무딘 산자락만 후려치고,//어머니/흰 삼베 적삼엔/비린/먹
개구리 울음 소리가/자주 물어//

형님은/한 이레 밤쯤 생각다가/드디어/젓나무 끝에 꽃힌/달을/부끄럽게 삼켰
지요//

한 말의 마(虜)를 지고/떠나던/ 열일곱/내 왕십리(往十里) 역사(驛舍) 위에도/그
달이/

그렇게 와/걸렸네요.

- 임보, <서동형님의 달>,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임보의 시 <서동형님의 달>은 원 텍스트를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
면서 시적화자는 달을 성(性)의 본능(本能)을 주관하는 자연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성적 충동의 변천(變遷)은 서동의 어머니에서 서동으로 이어지
고 또한 시적화자로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성의 본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화자는 서동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또한 서동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던 애정문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 시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한 작가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으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성적(性的)본능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해나가고 있다.

이 시에서는 신라시대의 인물인 서동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단순히
그를 과거의 인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로
느끼도록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시적화자가 지니고 있는 갈등의 상
황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어져오는 것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감성(感性)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시에서 열일곱살의 서동이 달을 부끄럽게 삼켰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은 선화공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동은 선화공주와의 육
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도 마찬가지로
열일곱 살 때 왕십리(往十里) 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
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서동과 마찬가지로 경험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동과의 동질(同質)감을 보여준다. 그런 경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통과(通過)적인 한 부분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과거의 인물과 현실 속 인물의 특성을 이원화해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고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過去)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안들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서동이 선화와 혼인(婚姻)을 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 시의 화자 역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누구나 겪는 통과와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인간의 삶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3) 문효치 <님 오시는 아침-선화공주>

저 지평선 끝에/일어서서 걸어 오시는 이//옷자락, 물들여 나부끼는/
어둠을 터어내고 다가오시는 이//
햇빛/ 거대한 악기 속을 지나 나오며/부신 선을 만들고//
선을/ 또한 휘감겨 세상을 밝혀/그 손목 잡고 오시는 이//
우주의 끝에 씻어 두었던/맑은 천년/그 어깨에 날개 달아/날아 올리며 띄어 올리며//
가슴 가슴 속에/별드는 방/방으로 들어오시는 이//
그 신발 끄는 소리/소리만 들어도/알 수 있는/ 님 오시는 아침//

- 문효치, <님 오시는 아침-선화공주>, 『백제시집』, 문학아카데미, 2004.

문효치의 시 <님 오시는 아침-선화공주>는 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확장(擴張)된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작품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서동요>의 중심인물이 서동이었다. 그러나 문효치의 시에서는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여성이 지닌 섬세한 감정을 중심으로 사랑의 감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 텍스트에서 서동(薯童)은 참요(讖謠)를 통해서 선화공주의 삶을 바꿔놓는 장본인이다. 말하자면 선화공주에게 애정을 구가하는 기쁨의 대

상이기도 하지만 선화공주 자신에게 갈등의 상황을 가하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갈등과 고통의 모습보다는 선화공주는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절실한 모습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만일 원 텍스트에 집착한다면 선화공주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분명히 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와는 달리 선화공주를 현대의 대중이라고 규정한다면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존재는 영웅(英雄)이거나 혹은 새로운 체제(體制)의 출현 일수도 있고 대중이 원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열망과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효치의 시에서는 애정문제에 중심을 둔 원 텍스트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기 보다는 선화공주의 내면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서술하면서 선화공주의 기다림의 태도에 중심을 두어서 서술하고 있다. 선화공주의 기다림을 현대의 대중(大衆)들에게 투영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대중들에게 긍정의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希望)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함민복 <서동을 부러워 함>

장안의 낭자들은 을지로 켈러리맨 두고/농촌의 노총각들을 밤에 몰안고 간다네//
노래가 사랑이 되던 시절이 있었네/말이 씨가 되던 시절이 있었네//
장안에 위장취업해 선화 공주님 만나/농촌으로 돌아오려고 했건만/
우리가 짓는 노래에서는 두엄 냄새가 나는지/멀고 멀기만 하던 처녀의 젓기숨이//
이제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슴 시린 사랑의 노래 전하려 해도/노래 불러 줄
학동들마저 없고/ 빈 집 늘 때마다 마음만 텅텅 외로워진다네//서동 그대는 참 부
러운 시대를 살았구려.

- 함민복, <서동을 부러워 함>, 『현대시학』, 1995년 4월호.

함민복의 시 <서동을 부러워 함>은 현대의 시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전

년(千年) 전의 신라와 현재의 시간의 차이를 초월하면서 화자가 지닌 감정을 상세하게 풀어어나가고 있다.

원 텍스트를 고스란히 현대적인 상황들과 접목하여 시속에서는 현대인들에게 경종(警鐘)의 메시지를 울리고 있다. 사랑을 성취(成就)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속이는 농촌 총각들과 신분을 속이고 마를 팔던 서동의 처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원 텍스트에서 선화공주와 혼인에 이르는 서동의 처지와는 달리 이 시속의 농촌 총각들은 결혼마저 쉽사리 할 수 없다. 또한 농촌총각들은 그런 상황을 비판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현 세태를 한탄스러워 하면서 과거 서동의 삶을 부러워한다.

시의 화자는 순수함과 진실이 존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간이 지닌 원형적인 감정인 사랑마저도 믿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로써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함민복의 시에서는 원 텍스트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상상력을 배제하고 현실의 문제를 서사적으로 설명하여 문제의 식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의 대중들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시공간을 시적배경으로 끌어 들여서 정서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리하여 현 세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되짚어보게 하는 성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가 <서동요>를 재창조한 현대 시인들은 무엇보다 <서동요>를 새롭게 읽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창작자들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적 인물을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녀와 그 결합에 중심을 두고 시적 상황을 서술하기 보다는 인간의 실존(實存)과 사회(社會)적인 현실에 집중하여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서동요>를 애정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색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다양한 감상을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이 다른 두 남녀의 결합이 가져온 성공적인 러브스토리는 사실보다는 현실의 대중이 지니고 있는 ‘삶’의 모습과 감정의 원형을 추적해가는 한편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이해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3. 연극 - <밀당의 탄생- 선화공주 연애비사>

연극 <밀당²⁵⁾의 탄생>은 설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코믹코드(comic-code)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만든 사랑이야기로 2012년 2월에 PMC대학로자유극장에서 공연 되었다. 이 연극은 한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공연, 창작뮤지컬, 라이센스 뮤지컬등 다양하고 탄탄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문화기업인 피엠씨 프로덕션에서 제작하였다.

연극 <밀당의 탄생>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선화와 서동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코믹 음악극이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는 것은 좋아하고 뛰어난 미모를 소유한 신라 최고의 연애스캔들의 주인공 선화공주는 그 시절의 클럽(dub)을 드나들면서 유흥(遊興)을 즐긴다. 신라 최고의 미남인 해명도령이라는 정혼자(定婚者)를 두고서 소위 연애의 달인 맛둥도령 서동과 연분이 난다. 감정의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흥미를 더해 간다. 한편 서동과 놀아난 것이 소문이 나서 선화공주는 외출금지를 당하고 상사병에 눈이 먼 서동은 선화공주가 궁에서 소박을 맞을 궁리를 하다가 소문을 내게 된다.²⁶⁾

신라의 향가 <서동요>가 연극으로 공연되면서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애정의 문제는 그대로 연극속에서 모티프로 작용한다. 그러나 선화공주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연애담(戀愛談)을 중심으로 코믹과 연애심리를 적절히 배합하여 현대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확장하였다. 이 연극에서는 관객의 정서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빠른

25) 밀당이란 신조어로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을 의미하는데 남녀관의 관계에서 미묘한 심리전을 즐기기 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로 남녀의 연애를 비유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26) <http://www.mildang.com/social/birth.php>

음악으로 템포감을 유지하는 한편 판소리, 아리아, 랩, 타령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결합한다. 국악과 현대음악의 상호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안무를 통해서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연극 <밀당의 형식>은 제목 그대로 밀고 당기기라는 컨셉에서 시작해 어느 쪽으로 전개될 지 모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밀고 당기기라는 감정은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이 어느 쪽이 이길지 짐작할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밀고 당기기라는 형식미를 차용(借用)한다.

원 텍스트가 지닌 익숙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을 변형하여 관객의 상상을 전복(顛覆)시킨다. 또한 음악 및 조명, 움직임, 소품 등에서도 밀고 당기기 형식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한다. 대사의 톤(tone)도 사극의 음가(音價)와 현대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한자어나 유행어 등을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등의 수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극의 전개방향을 이끌어 나간다. 또한 이 연극에서는 고수(鼓手)가 해설자 역할을 하는데, 북을 치면서 극의 문을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한다. 고수가 어느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 코믹과 감정이 교차하면서 갈등은 증폭된다. 고수는 이야기의 속도 전개감을 빠르게 유지시키고 극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현대연극은 고전적인 재현의 개념에서 벗어나, 재현의 층위를 바꾸면서 표현 영역을 넓혀왔다.²⁷⁾ 연극 <밀당의 법칙>에서는 기존의 원 텍스트가 지닌 모호한 이야기를 코믹이라는 소스를 접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연극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과거의 러브스토리에 집착하여 원 텍스트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이 지니고 있는 사유(思惟)와 관심거리, 흥미를 중심으로 공연하여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였다. 또한 연극 <밀당의 법칙>을 통해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거의 연애담과 생활상을 드러내어 현실의 대중에게 신선한 자극과 문제의식을 던져 주고 있다.

27) 안치윤, 『연극과 기억』, 을유문화사, 2007, 365쪽.

IV. 현대적 변용 양상의 의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복잡한 구조나 직설적 이야기, 교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전달되지 않으며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당연한 이야기에는 흥미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 또한 하지 않으며 전달의 의지 또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중의 흥미와 정보제공에 대한 부응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포섭할 수 있는 융합성과 개방성 그간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출처의 정확성과 해석의 깊이를 보여주는 전문성, 대중의 자발적이고 유희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능동성, 참여성, 상호작용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²⁹⁾

무엇보다 현대까지 전승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인간정신에 뿌리를 둔 ‘의미 있는’, ‘귀감이 될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 가치를 통해 ‘삶의 질적 수준 높이기’에 기여³⁰⁾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 특히 고전작품의 가치에 따른 지속적인 생명력은 현대에 와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전작품은 독자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그 변용의 주체에는 늘 독자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고전문학의 전승과 현대적 변용 양상은 작품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일상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현실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인 표현은 사실주의 정신의 매개항이 된다는 점에서 근대성이 반영되는 것이다.³¹⁾ 한편 문학은 시대와 더불어

28) 강명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은지논총』 28권, 은지학회, 2011, 121쪽.

29) 이상진, 「문화콘텐츠 ‘김유정’ 다시 이야기하기-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442쪽.

30) 설성경, 『구운몽 연구』, 국학자료원, 1999, 7쪽.

31) 강명혜,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양상 및 문화콘텐츠를 위한 수업모형」, 『우리문학연구』 제 21집, 우리문화회 2006, 12쪽.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인간을 억압하고 그 정신의 자유를 간섭하는 금기들을 깨뜨려왔다.³²⁾

이와 같이 현대의 독자들은 사실적인 이야기에 호응(呼應)한다. 무엇보다 그 내면에는 일상성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스토리들에 안정감을 느끼고 열광하고 금기(禁忌)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서동요>는 단순하게 규정하기에는 아직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작품으로 미묘한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모호성을 두루 내포한 노래로, 향가 <서동요>는 애정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적으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문제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인간의 욕망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적극성을 가진 노래이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많은 장르를 통해서 소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꿈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청정한 마음을 버린 지 오래로 저마다 욕망이란 전차를 타고 질주하려고만 하다 보니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며 별별 고장을 다 내어 인생이란 길을 막기도 한다.³³⁾ 그러나 <서동요>에는 단순히 욕망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현대에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대중이 가진 의지의 산물(產物)이 투영되어 있다.

한편 현대인들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감을 상실한 채 위축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대인관계(對人關係)는 맺고 싶지만 타인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훑쳐보기로 자신의 욕망을 대리 표출한다.³⁴⁾ <서동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은 현대인의 훑쳐보기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가장 은밀하면서도 베일에 싸인 신비한 장소인 궁궐에서 사는 평민과는 다른 고귀한 신분

32) 김주연, 『뜨거운 세상과 말의 서늘함』, 솔출판사, 1994, 106쪽.

33) 윤재근, 『노자』 2, 나들목 출판사, 2004, 189쪽.

34) 김상준, 『신화로 영화읽기 영화로 인간읽기』, 세종서적, 1999, 170~171쪽

을 가진 공주가 평민남자와의 애정문제가 발생되었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발설(發說)되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하였고 급속도로 퍼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금기(禁忌)와 도전(挑戰)’이라는 내용을 지닌 이야기는 그것을 모티프로 하여 변용하기에 충분하였고, 변용된 작품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훔쳐보기의 욕망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충분하였고 매력적인 이야기의 소재(素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동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에는 가시(可視)화하지는 않았지만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교양, 인간의 창조력을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보호하여 보다 풍부한 것으로 높이려고 하는 정신으로서, 이것을 부당하게 위협하고 압박하고 왜곡하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힘과 싸우는 것’이다.³⁵⁾ 이처럼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서동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가치를 기반(基盤)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차별과 체제 혹은 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또한 거기에 현대인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배합(配合)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대중은 이런 코드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삶에 대한 의욕을 얻을 수 있다.

V. 맺음말

이 논문에서 향가 <서동요>의 의미를 파악하고 후대적으로 수용된 가치와 특히 현대적으로 변용된 작품의 양상을 살펴서 그 속에 내재된 작품의 함의와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서동요>는 단지 향가로의 가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의 소통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서동요>는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전승되면서 러브스토리라는

35) 김윤식,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329쪽

원형적인 주제로 인하여 소통되었고 최근에는 문화적인 콘텐츠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향가 <서동요>가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과 성공담을 노래했다면 후대에 와서 특히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속에서는 인간의 실존과 가치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현대의 대중들에게 흥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특한 우리의 스토리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측면에서 <서동요>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동요>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여러 장르로의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실속 대중의 모습을 대변하고, 작가의 독특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많은 과제를 수반한다. 원 텍스트를 기반으로 확대된 서사를 창출하고 그 수익을 얻는다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임에는 확실하지만, 사실상 다양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동요>는 대중의 노래이다. 오랫동안 대중에 의해서 구가(謳歌)되어 온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애정의 모습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의 모습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복휴의 악부 <서동>에서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집중하면서, 신분이나 성별의 구별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감정을 갖을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는 유연한 문체인 악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수광의 『소설 서동요』는 설화적인 서사(敘事)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역사의 세부적인 사건들을 곁들여서 이야기의 이해를 증진(增進)하고 소설 속 주인공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들은 모두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선택을 한다. 이는 원 텍스트가 지닌 서동의 태도를 계승하면서 단순히 서동의 애정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삶을 대한 태도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중들의 기호(嗜好)에 잘 맞추어진 작품으로 쉽게 열광할 수 있게 한다.

항가 <서동요>를 재창조한 현대 시인들은 <서동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창작자들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정담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해석을 극복하여 다양한 감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삶과 감정의 원형을 추적해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애쓰고 있다. 연극 <밀당의 법칙>에서는 원 텍스트가 가진 모호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대중이 즐기는 코믹적 요소를 접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과거의 러브스토리를 충실히 보여주면서 현대인의 가치와 관심사를 흥미롭게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거의 연애담과 생활상을 드러내서 대중들에게 신선한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심어 주었다.

이와 같이 <서동요>를 다양하게 변용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통하여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주제의식을 살필 수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라는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현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르로의 변용은 원 텍스트가 지닌 매력과 친근감을 증진한다는 장점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없이는 그 가치를 추락시킬 수 있다. 고전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용되고 재창작 되어서 소통하고 전승(傳承)되어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을 지니고 있다. 그 속에는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배양해야 한다. <서동요>는 여전히 현대의 대중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고양(高揚)시키면서 다양한 장르로의 변용을 모색하고 있다.

▷접수일 : 2012.10.05 / 심사개시일 : 2012.10.06 / 게재확정일 : 2012.10.27

<참고 문헌>

- 『삼국유사(三國遺事)』, 『해동악부』
- 강명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온지논총』 28권, 온지학회, 2011
- 강명혜,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양상 및 문화콘텐츠를 위한 수업모형」, 『우리문학연구』 제 21집, 우리문학회 2006.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5.
- 강혜선, 「구애의 민요로 본 서동요」,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 김병욱, 「서동요고(考)」,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 김상준, 『신화로 영화읽기 영화로 인간읽기』, 세종서적, 1999.
- 김승찬, 「서동요 연구」, 문창어문학회, 1998
- 김용규, 『도덕을 위한 철학토론팀, 달콤한 맛』, 푸른그대, 2005.
- 김윤식,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 김주연, 『뜨거운 세상과 말의 서늘함』, 솔출판사, 1994.
- 김한식, 『소설의 시대』, 미다스북스, 2010.
- 김효림, 「삼국시대 서사문학연구-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난 통치자의 형상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류병윤, 「<서동요>의 형성과정」,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9.
- 박노준, 「서동요의 역사성과 설화성」, 민족어문학회, 1976
- 설성경, 『구운몽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심재호,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 연구」, 『국어문학』 50권, 국어문학회, 2011.
- 안토니 이스트호프·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6.
- 안치운, 『연극과 기억』, 을유문화사, 2007.
- 유비향, 「서동요와 서동설화의 원형적 상징 - 영웅출현원리를 중심으로 -」,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 유영혜, 「굴산 이유원 연구- 문화, 예술 취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철중, 「『서동요』의 신고찰 - ‘원을포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반교어문학회』, 1995
-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학회, 2008.
- 이상진, 「문화콘텐츠 ‘김유정’ 다시 이야기하기-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장성진, 「서동요의 형성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2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6.
-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수현, 「대중매체의 설화수용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1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 제2집, 한국시가연구회, 1997, 196쪽.
- 최용수,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학회, 1995
- 최재남, 「민요계 향가의 구성 방식과 사랑의 표현- <서동요>와 <헌화가>의 대비」,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 최 철, 『한국민요학』, 연세대출판부, 1998.
- 하경숙, 「고대가요의 후대적 전승과 변용 연구 -<공무도하가> · <황조가> · <구지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한영란, 「동요 개념의 전개양상 연구 -1910년대 이전의 문헌에 나타난 ‘동요’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학』 85권, 한국어문학회, 2004.
- 함귀남, 「삼국시대 인물서사의 후대적 재현 · 변모양상: 악부의 애정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Embracing Process and Change of <Seodongyo> in Posterity
/ Kyeong Suk Ha

<Seodongyo> which is a Hyangga (an old Korean folk song) constituted in 4 phrases, known as written in the period of King Jinpyeong, the 26th King of Shilla Dynasty, was recorded with a fable at 「Muwangjo (Article for King Mu)」 in volume 2 of 『Samgukyusa (the Heritage of Three States)』 and has been told to this day. <Seodongyo> which is a work made with repetitions of floating and accumulation among people for a long time, is a song of romance between Seodong (A guy from west) and a princess Seonhwa transcending their social standing, however actually it has various properties so that changes and embracements have been being proceeded in various genres. Recently studies of <Seodongyo> has been being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cultural contents, songs, literature, visual image, regional culture, architecture, storytelling etc. and their various implication can be considered as variegated.

The song's ambiguity and hidden implication that <Seodongyo> contains has enough value to be used as a material for the literature and endow works with fresh vitality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sion and change into various genres. First of all we should not forget that <Seodongyo> is not only a Shilla dynasty's song but a text with various properties which have been being created even now. <Seodongyo>, a Hyangga, was sung during Chosun dynasty as Akbu (words of song) of Lee Bokhyu's <Seodong> to show strong critical consciousness against real world. And in modern times, the Hyangga <Seodongyo> newly communicates with public through modern poems, modern novels, dramas and musicals.

Writers who recreated <Seodongyo>, tried to represent <Seodongyo> in new vision. First of all the writers tried to visualize realistic appearance and

social situation of human beings focusing on them instead of weighing romance story between Seodong and the princess Seonhwa. It is a trial to overcom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to offer experiences of various senti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endeavo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investigating the original form of the life and emotion. In addition we can review writer's attitude or his consciousness of the theme against his work through the work or contents changing <Seodongyo> variously. That is not the simple meaning of cut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on the contrary it can be considered as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based on the past through the work.

Key words: Seodongyo, Embrace in posterity, Change, Seodongprincess Seonhwa.